

회원칼럼/회원신간

- 새로운 공관장 평가제도
 - 눈길끄는 中·印의 인도양 패권 경쟁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스포츠외교
 -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의 귀환
 - 중국 길림성 독립운동 유적 탐방
 - 미술 감상 소론 - 임명진 대사 전시회를 참관하고

 -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이재춘 저)
 - 바람의 전설(성필주 저)
- 

새로운 공관장 평가제도

전 총 렬*

지난 7월7일, 남아공의 더반에서 자크 로케 IOC 위원장의 ‘평창’이라는 말과 함께 세 번에 걸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쾌거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신장되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좋은 예였을 뿐 아니라, ‘외교’의 역할과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준 사건이기도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당시의 언론 보도가 관료와 기업인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의 활약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반면, 2012 평창올림픽 유치의 경우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각 분야 민간 외교관들과 평창 서포터즈의 활약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우리 외교의 형태가 변화한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지난 몇 십년간, 우리 외교는 해외진출 확대와 국력신장에 따라 과거 안보 일변도 외교에서 경제·통상, 재외국민보호, 문화, 개발협력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이 같은 외교변화에 맞추어 재외공관의 역할도 다기화되어, 각 부처는 물론, KOTRA, NGO 등 다양한

기관들의 해외활동을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각적 활동을 통해 종합적인 국익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외교의 기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관장 평가는 이러한 공관역할의 변화는 물론, 공관별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항목과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결과의 수용도가 낮고 인사에 적극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외교부는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노력중 하나로 공관장의 다양한 외교활동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장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담당대사와 채용평가팀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관장 통합평가 시스템을 마련, 시범실시 중에 있다.

작년 12월부터 민간전문가와 전/현직 공관장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8개분야, 31개 평가항목, 168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 실·국에서 공관장 한명 한명에 대해 밀착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

*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인력·예산 등 공관 여건에 따라 평가그룹을 차별화하여 공관별 특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따른 공관장 평가결과는 공관장 인사, 공관 예산 및 인력 배치 등에 다양하게 반영될 계획이다. 먼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관장은 차기 인사에서 희망하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높은 성과연봉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공관장은 통상 3년간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소환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성과평가는 구성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제도 중 하나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

과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공관장 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앞으로 공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공관활동의 업무효율이 제고되는 한편, 총력·복합외교의 추진 발판이 강화될 것이다.

아직까지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에게 공관장이나 외교관은 쉽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번에 도입된 ‘재외공관 통합 평가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이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우리기업과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고, 해외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외교**